

2020년 희곡우체통 5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그게 다예요>

2020년 우체통의 희곡 낭독회 5차 선정작은 <그게 다예요>입니다. 치매에 걸린 조모의 웨딩드레스를 매개로 존재의 아픔과 역사를 조망한 작품이지요.

작의에서도 드러나듯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세대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급속한 근대화화 역사적 격변을 겪으며 질주해온 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거리를 갖고 조망하면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들이 세계,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체입니다. “나”라는 개념은 “당신” 없이 존재할 수 없지요. 차이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접근하는 방법과 시각에 따라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다예요>는 이런 차이에 공감의 사다리를 놓는 작품입니다. 모모라는 청년이 자신을 길러준 조부모의 흔적을 찾는 작품으로, 단편적인 기억의 파편들과 연상에 의지해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존재의 근원을 찾는 여정이지요.

아직 숙달되지 않은 작가가 쓴 듯 상황의 전개나 설정에서 다소 억지스러움도 느껴지고, 등장인물이나 지문도 해체되어 쉽게 이해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한편으론 완성도의 부족으로도 읽히지만, 또 한편으론 총체성을 상실한 세계를 파편을 통해 재구성하려는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입니다. 덕분에 작품을 쉽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파편적인 기억과 연상을 천천히 좇다 보면 한국 전쟁의 불우한 순간이, 역사에 방치된 자들의 섭섭함과 고독이 문득 아름답게 와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절절한 순간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과연 대면 공연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잃어버린 근원의 시간을 더듬고 기억하는 긴 호흡의 시간을 갖기에 적절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